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50호 [루게 제23302호] 주체99(2010)년 12월 16일 (목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22군부대 산하 대동강뱀장어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22군부대 산하 대동강뱀장어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정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룡해동지, 태종수동지, 국방위원회 국장들인 현철해동지, 리명수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군부대지휘관들과 공장의 책임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하여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직접적 발기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2002년에 건설된 대동강뱀장어공장은 최신 양어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적인 양어기지이다.

연건평 2만여㎡에 달하는 뱀장어공장은 최신식설비들로 장비된 사료공실, 각이한 크기를 가진 79개의 양어못, 2개의 온수보이라실을 비롯한 모든 양어조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다.

수질관리체계의 CNC화를 실현한것을 비롯하여 모든 생산공정이 고도로 과학화, 집약화된 이 공장에서는 뱀장어를 공업적방법으로 다량생산하고있다.

공장의 종업원들은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뱀장어를 많이 길러 평양시민들에게 공급할데 대한 어버이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심장깊이 새기고 공장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축성한데 기초하여 양어를 과학화, 집약화함으로써 뱀장어생산을 계통적으로 늘어 수도시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종합조종지휘실, 분석 및 실험실, 실내양어못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기술장비상태와 사양관리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하나의 정결한 과학연구기관을 방불케 하는 산뜻하고 아담한 건축물들과 양어못마다에서 뱀장어들이 옥실거리는 희한한 광경을 보시고 세계적수준의 뱀장어공장을

훌륭히 건설하고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부대군인들과 공장종업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몇해사이에 뱀장어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는것은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우리 당의 주체적인 양어방침을 철저히 관철한 결과라고 하시면서 이들처럼 이악하게 투쟁한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맛 좋은 민물고기를 더 많이 먹일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로 과학적인 양어체계를 새롭게 확립함으로써 민물에서 자라 바다에서 번식하는 강내림성물고기인 뱀장어양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혁명적인 투쟁기풍을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공장은 최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생산공정의 과학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함으로써 물온도와 수질상태에 대한 검사를 비롯하여 모든 공정들이 컴퓨터에 의하여 종합조종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첨단설비들로 장비되고 실리있게 건설된 이 공장이야말로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덕을 줄수 있는 공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시대를 선도해가는 우리 군대는 당의 양어방침을 관철하는 사업에서도 선구자적역할을 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철갑상어, 뱀장어를 비롯한 첨단양어의 개척자들도 다름아닌 우리 군인들이라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데서 대동강뱀장어공장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강렬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최근 도처에 메기, 칠색송어, 철갑상어양어장을 비롯한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적인 물고기생산기지들이 일떠선 결과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풍족히 먹이려는 우리 당의 구상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 사업을 통하여 양어야말로 수익성이 높은 대단히 경제적인 생산분야일뿐 아니라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민물고기를 넉넉히 먹일수 있는 가장 빠른 방도이라는것이 실천으로 증명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는 강과 호수, 샘물과 온천이 많기때문에 양어를 대대적으로 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다고 하시면서 양어를 군중적운동으로 광범히 벌려 이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조선인민군 제522군부대산하 대동강뱀장어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1 번 에 서 계 속

김정일동지께서는 대동강뱀장어공장은 특정한 과학기술적토대와 풍부한 경험을 쌓은것만큼 전망성있게 설계하고 조직사업을 짜고들면 짧은 기간에 손꼽히는 뱀장어생산기지로 전변시킬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뱀장어생산을 높이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과학적인 사양관리체계를 세우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사업을 강화하고 기술자들과 사양공들의 기술

가능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뱀장어양어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과학기술문제들을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선진적인 사양관리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지금 성과적으로 진행하고있는 다른 종류의 물고기연구도 계속 심화시켜 과학화, 집약화함으로써 뱀장어뿐아니라 희귀한 물고기를 공업적방법으로 더 많이 기르기 위한 사업을 즐기치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양어는 인민들에게 더 많은 민물고기를 먹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것만큼 먹이문제를 비롯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제때에 원만히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미 마련된 양어기지들의 생산성을 부단히 높이고 현대적인 양어장들을 더 건설하여 민물고기생산을 급속히 늘임으로써 로동당시대에 우리 인민들에게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뱀장어를 비롯한 고급어족들을 더 많이 보내주자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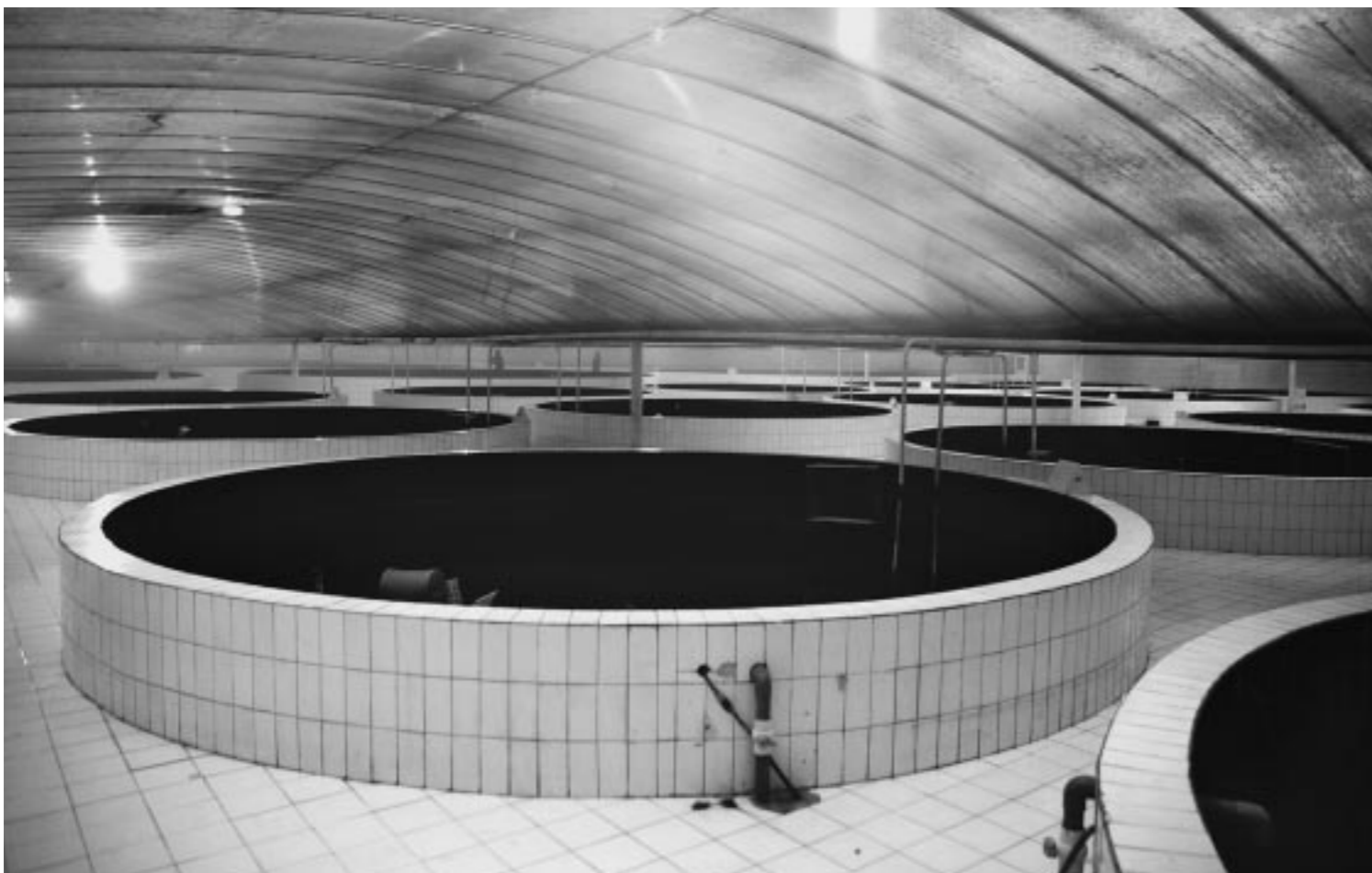
김정일동지께서는 강성대국에서 살게 될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과 음식문화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자는것이 당의 의도이고 리상이라고 하시면서 물고기를 많이 기르는것이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모든 양어장에서 시작한 일을 끝장을 볼 때까지 근기있게 내밀어 인민들이 그 덕을 실지로 보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부강조국건설에 헌신함으로써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서

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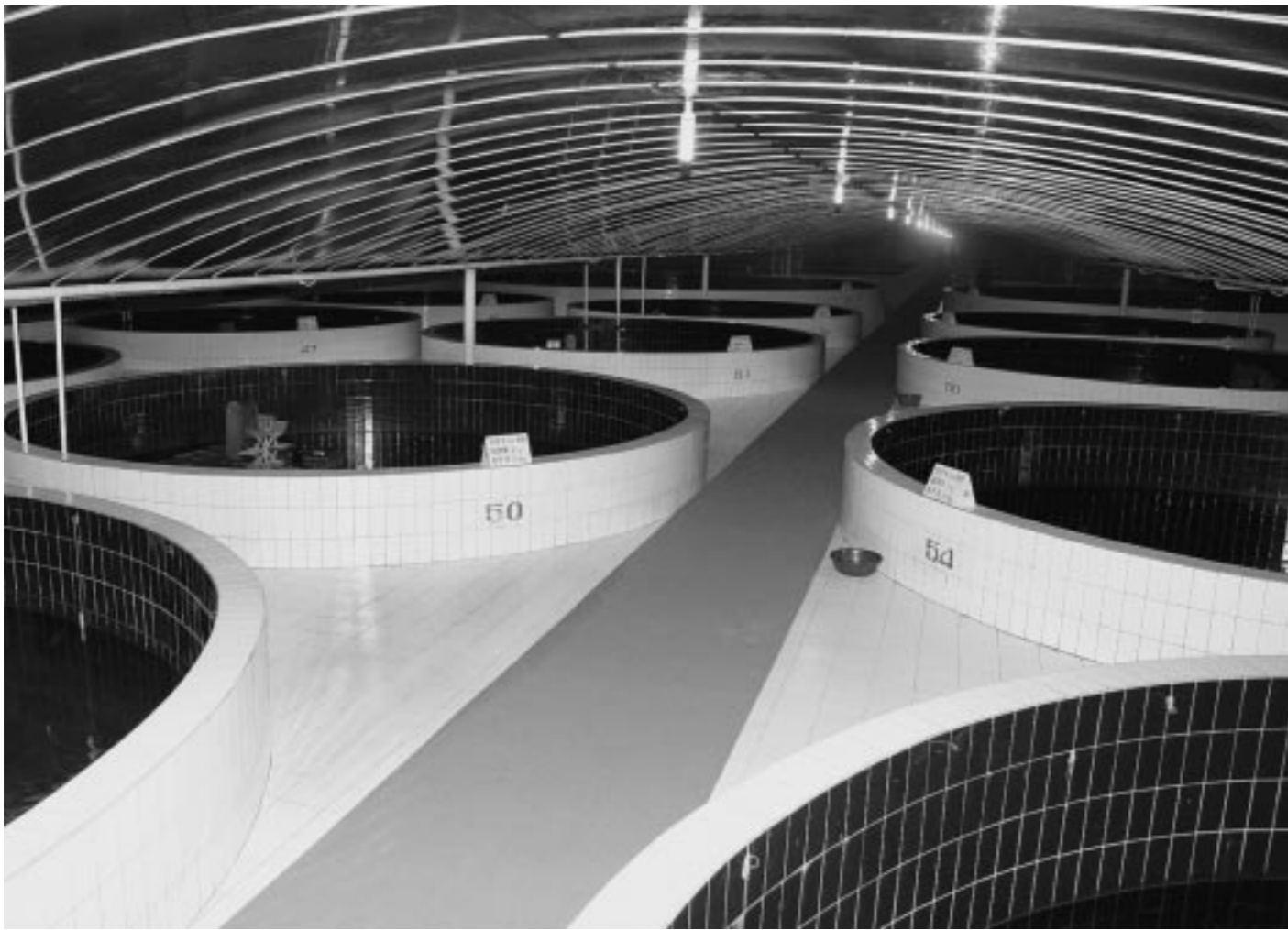
대동강뱀장어공장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찬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어 인민사랑의 불멸의 자욱을 새기시며 크나큰 로고를 바치신 어버이장군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결사판철하여 양어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기여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22군부대산하 대동강뱀장어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자

무산광산련합기업소, 무산식료공장, 함경북도예술단 종업원들의 결기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무산광산련합기업소, 무산식료공장, 함경북도예술단 종업원들의 결기모임이 13일에 각각 진행되였다.

오수용 함경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해당 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 종업원 결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대형과쇄장에 오르시어 건설정형과 생산실태를 료해하시고 기업소앞에 나서는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탐사를 앞세워 더 많은 예비광량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채굴대책들을 세우고 기업소의 현대화를 계속 힘있게 다그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1호대형원추형과쇄기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며 2호박토파쇄장과 새로운 광상과쇄장건설을 짧은 기간에 끝내어 질 좋은 철정광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기업소에서는 제굴 및 운반 설비들의 대형화를 적극 추진하며 설비보수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제때에 충분히 보장해줄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무산식료공장 종업원결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여 군내주민들과 무산광산련합기업소의 광부들에게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공급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지방원료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하고 원료기지 조성사업을 전망성있게 내밀며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 하여 모든 기대들을 만부하로 돌림으로써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공장의 전반적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치며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위생환경보장사업에 큰 힘을 넣을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함경북도예술단 종업원결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예술인들에게 보내주신 감사를 받아안은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창작공연활동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창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주제적문예사상과 리론을 구현하여 들끓는 현실속에서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고 공연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들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는 강성대국건설의 담보인 불패의 군력을 튼튼

히 다지고 국가경제력을 강화하여 인민들의 리상을 실현해나가는 위력한 정치방식이다.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조선인민은 김정일각하의 선군혁명명도밑에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김정일각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는 강성대국건설의 담보인 불패의 군력을 튼튼

히 다지고 국가경제력을 강화하여 인민들의 리상을 실현해나가는 위력한 정치방식이다.

선군은 조선력사에서 전례 없는 번영의 새시대를 안아온 위대한 창조의 기치이며 최첨단기술에 기초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함으로써 자체의 힘으로 조선식의 경제강국을 건설하게 하는 비약의 기치이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장구한 선군혁명명도의 나날 끊임없는 현지지도로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고 조선에 위대한 번영의 시대를 안아오

시켰다.

그이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영원히 빛날것이다.

지금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김정일각하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선군의 기치를 높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하루빨리 열어제끼기 위한 혁명적전군을 다그치고있다.

선군명장이신 김정일각하를 당과 군대,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있는 한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슴에 새긴 조선의 군대와 인민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조선중앙통신]

## 번영과 밝은 미래를 담보하는 선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월에 즈음하여 선군혁명명도의 위력한 정치방식이다.

선군은 조선력사에서 전례 없는 번영의 새시대를 안아온 위대한 창조의 기치이며 최첨단기술에 기초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함으로써 자체의 힘으로 조선식의 경제강국을 건설하게 하는 비약의 기치이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장구한 선군혁명명도의 나날 끊임없는 현지지도로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고 조선에 위대한 번영의 시대를 안아오

히 다지고 국가경제력을 강화하여 인민들의 리상을 실현해나가는 위력한 정치방식이다.

선군은 조선력사에서 전례 없는 번영의 새시대를 안아온 위대한 창조의 기치이며 최첨단기술에 기초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함으로써 자체의 힘으로 조선식의 경제강국을 건설하게 하는 비약의 기치이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장구한 선군혁명명도의 나날 끊임없는 현지지도로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고 조선에 위대한 번영의 시대를 안아오

히 다지고 국가경제력을 강화하여 인민들의 리상을 실현해나가는 위력한 정치방식이다.

선군은 조선력사에서 전례 없는 번영의 새시대를 안아온 위대한 창조의 기치이며 최첨단기술에 기초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함으로써 자체의 힘으로 조선식의 경제강국을 건설하게 하는 비약의 기치이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장구한 선군혁명명도의 나날 끊임없는 현지지도로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고 조선에 위대한 번영의 시대를 안아오

[조선중앙통신]



필승의 선언 - 《무장에는 무장으로!》

역사적인 겨울명월구회의 기념일을 맞으며

위대한 당의 영도 밑에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주체혁명위업은 그 개척기부터 선군을 생명으로 내세운 성스러운 혁명이다.  
 선군은 우리의 생명이다!  
 바로 이 력사의 첩리를 우리 혁명 앞에 투쟁의 구호로 내세운 회의가 역사적인 겨울명월구회의이다.  
 강력한 자위적무장력에 의하여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앞길에 열리고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강성군 건설대전의 승전고가 련이어 울리고 있는 이 시각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찌기 선군의 가치를 높이 드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선포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쓰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오랜동안 조선혁명을 령도하여오신 진행정에서 총대중시, 군사중시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시었습니다.》  
 역사적인 겨울명월구회의가 진행된 때로부터 장구한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이 회의의 력사적의의는 시대의 전진과 더불어 더욱 뚜렷이 부각되고있다.  
 항일무장투쟁의 시초를 열어놓은 회의, 바로 여기에 겨울명월구회의가 우리 혁명에서 차지하는 력사적 위치가 있다.  
 경제하는 장군님께서 뜨겁게 회고하신것처럼 우리 수령님은 선군사상의 창시자이시며 선군혁명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제국주의 약소국가들을 총칼로 짓밟던 20세기 초엽에 발흥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와는 무장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는 선군사상을 내놓으셨고 항일무장대오를 결성하신분이 아버지수령님이시었다.  
 처원과 파업, 개인테러로써는 실제와 좌절의 쓰라린 괴물을 삼킬 수 밖에 없다는것이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사가 남긴 피의 교훈이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기

에 종지부를 찍고 일제와 총대를 끌어까지 결산할 불타는 의지를 안으시고 명월구회에서 력사적인 회의를 소집하시었다.  
 당시 일제가 일으킨 9. 18사변은 중국인민에 대한 침략인 동시에 만주에 살고있는 조선인민들과 조선혁명가들에 대한 침공이기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피눈은 조선의 혁명가들이 이에 응당한 대답을 해야 한다고 보셨다. 조선혁명에야 부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자가 무엇을 할것인가 하는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한몸을 내내어 할때가 온것이었다.  
 주제 20 (1931)년 12월 16일, 명월구의 당 및 공청간부회의에서 우리 수령님께서 걱정애 넘쳐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전에 울리는듯하다.  
 우리는 국전도 령도도 자원도 다 빼앗긴 망국노의 아들들이다. 지금 남의 나라 땅에서 결방살이를 하는 적수공편의 청년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주저 없이 도전해나섰다. 무엇을 믿고? 인민을 믿고 항일전쟁을 시작하고 결심하였다. 인민이 국가이고 인민이 후방이며 인민이 정주군이다. 싸움 이 시작되면 전진이 병사가 되어 일어날것이다. ...  
 거룩적인 무장투쟁으로 침략의 무리들을 이 땅에서 영영 쫓아버리시려는 백두산청년장군의 철석같은 선군의 의!

10대의 시절에 벌써 력사의 어느 위인도 내놓을 수 없었던 선군사상을 증명하시고 조선혁명에 철저히 구현하신 우리 수령님은 정녕 얼마나 절충한 위인이신가.  
 아버지수령님의 비범한 위인상은 9. 18사변으로 하여 온 만주땅이 동탄속에 잠겨있던 시기 대륙을 뒤흔치는 일제의 포성앞에 더 요란한 정의의 포성으로 단호히 맞설 결심을 내리신 당대해방배에 이르러있다.  
 명월구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것은 무장투쟁을 하되 어떤 형식으로 하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정규전이나, 유격전이나?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도 이 문제를 두고 많은 사색과 시간을 바치시었다.  
 국가가 없는 실정에서 정규전으로 일제와 대항한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당장 전진이 동원되어 무장투쟁을 일으킬수 있는 조건도 성숙되어있지 못하였다. 그렇다고 유격전을 선택하고 하니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이 있어야만 유격전을 할수 있다는 기성리론이 앞길을 막았다.  
 하지만 우리 혁명이 처한 구체적인 것과 객관적조건들을 환히 꿰뚫어보시고 변화무쌍한 유격전만이 조선혁명가들이 선택하여야 할 기본무장투쟁형식이며 다른 출로는 있을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신 우리 수령님.  
 그때를 돌이켜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후날 뜨겁게 회고하시었다.  
 내자신도 그 가능성여부를 여러번 저울질해보았다. 우리가 몇 자루의 총을 가지고 일본과 같은 군사강국에 감히 대항해나선다면 조선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의병도 독립군도 장광항의 30만대군도 모두 일본군의 위력앞에서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하였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그들을 따승하려고 하는가. 우리에게 국전이 있는가, 령도가 있는가, 재부라는 것인가? ...  
 의의참가지들이 땅과 대로, 비행기와 같은 현대적인 무기로 장비된 일제의 수백만대군을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그것도 남의 나라 령토에서 유격대와 같은 비정규적인 무력으로 이겨낼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표시한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그중대한 시각에 우리 수령님께서 내놓으신것이 력사에 전무후무한 유격전 관한 사상이었다. 인민이 국가이고 인민이 후방이며 인민이 정주군이라는 사상은 총대에 의거하여 우리 민족자세의 힘으로 조국의 해방

과 영원한 번영을 이룩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사상의 고귀한 결심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유격전쟁론을 내놓으셨으며 회의에서는 혁명무력건설문제, 대적적방반을 축성하는 문제와 조종인민의 반일공동투쟁을 형성할때 대한 문제, 당조직사업과 공업사업의 대항화해에 대한 문제들이 명백한 방향을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될수 있었다.  
 유격전에 의한 무장투쟁의 전개, 참으로 그것은 거대하고도 심원한 창조적사업이었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의 유격전도 우리 나라 혁명실정에 그대로 적용할수 있는 표준은 없었다.  
 조선혁명가들은 오직 자기 머리로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근거지를 꾸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간고한 투쟁은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이 없는 력사적 투쟁으로 엄혹한 조건에서 유격전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었던 조선의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피할 길없는 민족자적인 과제였다.  
 만일 그때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교조적으로 모방하였다면 조선혁명가들은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실패를 면치 못하였을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카를에서 확립된 무장투쟁의 의지는 이렇듯 명월구에서 거듭 확인되었으며 《무장에는 무장으로!》라는 구호에는 혁명적폭력으로! 라는 구호만이 일제를 격멸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항일전쟁이 정식으로 선포되었다.  
 바로 이 회의의 의의적 방향을 규정해주는 전략과 전술적원칙의 골자가 마련되었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비상히 풍부하고 변화무쌍한 무장투쟁의 전법들이 창조되었다.  
 《무장은 우리의 생명이다! 무장에는 무장으로!》  
 우리 수령님께서 명월구회에서 계시하신 이 투쟁구호는 온 민족의 가슴에 활화산같은 불기를 지펴올려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은 전면적인 무

위대한 당의 영도 밑에 강성대국을 향하여 신심드높이 전진하는 천만군민의 대오속에는 녀성들의 모습도 자랑스럽게 비껴있다.  
 이 자랑찬 현실을 대할 때면 해방직후 새 민주조선건설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녀성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엄한 모습이 우뚝이 양자와 솟아나는 격정을 금할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머리에는 언제 한번 펴핀 지내지 못하시고 수령님을 받드는 사업에 한생애를 고스란히 바치시었습니다.》  
 주제 35 (1946)년 3월 어느날이었다. 녀명부문의 사업을 도해하던 김정숙동지께서는 한 녀성일꾼에게 내영양연구소장 사업에 책임지고 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었다.  
 일군은 말은 과업을 훌륭히 수행할 불라는 결의를 다지며 즉시 사업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그는 민주녀성운동의 강령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신대로 작성하여야 하였는데 무엇 때문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타까와하고있었다.  
 갈피를 잡을수 없어 모레 기던 그는 어느날 김정숙동지를 찾았다.  
 그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어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정히 웃으시며 동무의 생의성태로 유혹 솟아나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자기의 심정에 대하여 말씀드릴뿐 이렇다할 의견을 내놓지 못하였다.  
 그러자 김정숙동지께서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이 담고있는 력사적근원과 본질, 그 견해를

이 우리 혁명발전애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하나하나 분석하시었다.  
 일군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잠시 말씀을 멈추시었던 김정숙동지를 울게 만들자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시기 녀성문제해결에 관한 김정숙장군님의 독창적인 사상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그게서서 김정숙장군님의 사상에 비추어볼 때 모든 녀성들이 당의 기본정치과업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녀성의 첫째가는 임무로 내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와 함께 녀성들을 식민지적 및 봉건적착취에서 가장 철저하게 해방하는 문제, 인신적에 속과 남녀불평등에서 해방하는 문제 등 강령초안에 담겨져야 할 내용들을 사리정연하게 해설해주시었다.  
 일군은 속으로 탄성을 울리며 김정숙동지를 우러랐다.  
 그후에도 김정숙동지께서는 완성된 강령초안을 보아주시며 자그마한 문장과 표현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바로잡아주시었다.  
 드디어 주제 35 (1946)년 5월에 진행된 북조선민주녀성동맹 1차대표자 회의에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지도하시고 완성시키주신 북조선민주녀성동맹의 첫강령이 만장일치의 열렬한 지지와 우리같은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이것은 녀성동맹이 새 조국건설의 한폭수레바퀴를 맡은 녀성들의 조직으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한 획기적사건이었다.  
 김 명 훈

녀성동맹의 첫강령에 어린 세심한 수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여러 나라 국가령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마 나 바  
 바 레 인 왕 국 국 왕  
 웨이크 하마드 빈 이사 알 할리파패하  
 나는 바레인왕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나라의 사회적인장과 경제발전전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언제나 성과가 있을것을 중심으로 축원하면서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99 (2010)년 12월 15일 평 양

베 른  
 스 위 스 연 방 대 통 령  
 미 셸 린 갈 미 - 레 이 각 하  
 나는 당신이 스위스연방 대통령으로 선거된데 대하여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 관계가 풍요의 리에에 맞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것과 아울러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합니다.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99 (2010)년 12월 15일 평 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네네플란드왕국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평양 12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폴 알렉스 벤크벤드 주조 네네플란드 특명전권대사가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여기에는 공식서 의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무성 부상과 네네플란드왕국대사관 성원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귀대성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신천군 우물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서는 회계의 선군형성이신 경제하는 장군님의 위대성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되고있다.  
 특히 지난 9월에 진행된 력사적인 당대표자 회의에서 경제하는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민족적대경사를 두고 온 세계가 찬양한 사실자료들을 가지고 위대성전진을 방법론있게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서들과 선동원들의 역할을 높여 그들이 당보에 실린 경제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현지지도소식들과 그이께서 당과 혁명을 위하여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에 대한 자료들을 정성적으로 독보하고 그를 통한 정치사업을 확신적으로 진행하도록 적극 북돋아주고있다.  
 이곳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선군시대 애국농민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당원한 농사일에 있어 편일 혁명을 일으켜나가고 있다.  
 룡동통신원 리 정 수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 하고있는 참관자들

선군의 위력 떨치는 길에서

확고한 신념과 의지  
 주제 61 (1972)년 4월 어느날 경제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대의 한 책임일꾼과 함께 포대봉에 오르시었을 때의 일이다.  
 백화만발한 절승경계, 짙은 꽃향기가 실려오는 산정에 오르신 경제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이 모셔진 만수대언덕을 바라보시며 수령님께서도 당도 강화하고 인민전선도 강화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귀중한 교시를 주시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이이께서는 수령님의 교시를 받으며 자신께서는 수령님의 전사로서의 력사적사명감을 깊이 걸잡하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제하는 장군님의 말씀에서 일군은 그이의 거대한 심자리에 다져지는 그 어떤 비상한 각오를 예감하며 숨연한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그러한 일군을 다정히 바라보시며 경제하는 장군님께서도 지금까지 그러했지만 인민군대는 앞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무장으로 튼튼히 옹호보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한동안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바라보시던 이이께서는 마더마더에 보다 심원한 의미를 담아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시었다.  
 군대는 당과 국가와 함께 우리 혁명의 기둥을 이루는 3대기둥의 하나이다. 나는 앞으로 인민군대사업에 더 많

은 관심을 돌려 인민군대를 그 어떤 친지품에도 드물지 않는 혁명의 억센 기둥으로 꾸리고 싶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뜻이며 곧 나의 확고한 의지이다. ...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깊이 새겨주신 사명감  
 언제나 경제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인민군대의 책임일꾼들과 함께 철골혁명사적지를 찾으신다.  
 그대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기념촬영도 하고 혁명사업을 계속해나갈 교대자들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고 감격과  
 주제속에서 이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계속하고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투쟁은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전진미망의 길을 헤쳐나가는 간고하고도 장기적인 투쟁이다. 항일혁명선열들이 수령님을 모시던 그 자레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대를 이어 충정을 다하여야 한다고 힘써 말씀하시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해나 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깊이 새겨주시는 뜻깊은 말씀이었다.  
 경제하는 장군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일꾼들은 그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무적의 총대를 더욱 엄격히 뉘어주고 혁명의 천마리길을 끝까지 가고 갈 불라는 결의를 다져서  
 최 순 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운산군 조양협동농장에서  
 항일혁명투사들의 투쟁기공을 적극 분반아 살며 일하는 사람들속에는 운산군 조양협동농장 일꾼들과 농장원들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이 발휘한 혁명적인 투쟁기공과 생활기공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입니다.》  
 사회주의전쟁으로 나날이 변모되는 농정의 모습은 그 대로 투사들의 투쟁기공을 본받아 제천으로 농장을 훌륭히 꾸리는것이 이리 사람들의 사상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10여년전까지만 하여도 농장의 면모는 지금과 같지 않았다.  
 그때 농장을 돌아보면 일군인 김대명동무는 자기의 어깨에 실린 무거운 임무를 깊이 자각하였다.  
 (우리도 항일유격대식으로 투쟁하고 생활하여 농장을 더욱 훌륭히 꾸리자.) 곧 모일이 열렸다.  
 백두밀림에 나뎠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조양협동보안대가 꾸려나갔다는 그의 호소는 대중의 심장속에 불을 달아 주었다. 이어 혁신적인 살림집 건설목표가 제시되었다.  
 사실 시기마다 제기되는 농사일을 착실히 해나간다면 살림집건설을 동시에 내면한다는 은 힘에 부치는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러나 항일혁명투사들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투쟁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이 이곳 일꾼들과 농장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었다.  
 일꾼들모두가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이신작적으로 대를 이어나갔다. 현장에서는 자주 격심없는 협의의 회가 열리거나 독자적인 도회가 세워지고 있었다.  
 일꾼들도 농장원들도 한마음한뜻이 되어 애국의 광양을 아낌없이 흘렸다.  
 여러가지 애로로 하여 살림집건설이 계획대로 진척되지 못하고있을 때였다.  
 김대명동무는 항일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명명은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의 내용을 가지고 정치사업을 진행하였다. 생명을 위협하는 모진 역경속에서도 투사들이 결사의 투쟁을 벌려 식량을 마련할데 대한 사명판중지의 명령을 끝까지 관철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었다.  
 실속있는 화선집짓기사업은 언제나 농장원들을 위훈으로 고무하였다. 첫성파의 열매는 컸다. 이에 자만하지 않고 이곳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해마다 자재의 힘으로 지지 않는 살림집들과 공군군물들을 건설하였다.  
 이들은 백두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농장을 더 훌륭히 꾸리는 보람찬 투쟁에 애국의 한 마음을 다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김 철 혁

항일혁명투생기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조건에서도 언제나 승리만을 떨칠수 있었던은 꾸준한 학습과 사상단련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로선과 방침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제령군 금산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투사들처럼 학습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였는데 농사일은 물론 생산목장, 생활문화학원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해나가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높은 혁명정신과 그들이 쌓아올린 혁명업적과 투쟁경력은 우리 인민이 영원히 따라배우고 계승해야 할 귀중한 재산입니다.》  
 주제 62 (1973)년 11월 어느날 이 농장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탈곡장을 잘 모방하고 날아떨어질 감지하여 한알의 낱알도 허실하지 않게 천천히 자기가 사는 마음을 깨우기 구원대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그대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흘렀지만 이 고강 사침들은 언제나 그대의 고귀한 지침을 심장애 새기고 농장을 령도업적담당 임자에게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투쟁의 앞장에는 제 2작업반

원들이 서있다.  
 올해 정초 작업반에서 혁신적인 탈곡장건설목표를 내세웠을 때였다.  
 사실 작업반자체의 힘으로 하기에는 방대한 과제였다. 하지만 뜻깊은 당청전 65톤을 맞을 기어 이 해나자는것이 작업반원들의 한결같은 결심이였다.  
 (대중의 학습업의를 고조시켜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한 불러일으킨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면 없다.)  
 작업반장 김장동무의 가슴에는 신심이 솟아올랐다.  
 탈곡장건설의 시작과 함께는 작업반에 항일유격대식학습 열풍이 세계에 나태났다.  
 작업반원들속에서 농장에 어린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체득시키며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이 당정책학습, 혁명전통학습과 결부되어 실속있게 진행되었다.  
 현대과학기술을 모르고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작업반원들은 새로운 과학농사지식을 습득하고 건설에 대한 시간을 넓히기 위해 학습을 정상화하였다.  
 혁명적학습열풍은 탈곡장건설에서 뚜렷한 성과를 안아왔다.  
 당조직에서는 성과가 클수록 대중을 더 큰 비약에 불러오기 위해 최상기학습을 보 다 심도있게 진행하였다. 이석



# 사랑의 자욱 따라 행복이 온다

## 온 나라에 사회주의만세 소리가 더 높고 울려 퍼지게!

우리 인민의 식생활향상을 위하여 언제나 깊이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엄밀한 계획화 된 신농수산물공장과 향반루대중식당을 찾아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소식을 또다시 받아안은 천만민들은 한해가 다 저물어가는 이 시각에도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절세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의 정으로 가슴 불태우고 있다.

우리는 강성대국건설사에 남을 그 불멸의 순간순간들과 그로 하여 꽃피는 근로자들과 광부, 낱물 커가는 인민의 행복을 전하고싶어 영광의 일터들을 찾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이 하늘아래, 이 땅위에 하루빨리 통일변혁하는 불꽃의 대강물을 밀어내며 통일정책의 존엄을 시대의 상상봉에 올려세우려는 것은 우리 당의 철석같은 의지이며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열망입니다.**》

질좋은 당과류들을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신농수산물공장은 생산의 동음이 정답게 울리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작업장에서 우리와 만난 공장의 일꾼은 이렇게 말했다.

《여기가 바로 최첨단을 돌라 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에스키모와 탄산단물을 비롯한 현대적인 식료품생산공장을 새로 꾸린 작업반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신식식료가공설비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이 작업장에서 쉬임없이 출

아지는 갖가지 식료품들을 보시고 못내 기뻐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도 깊은 관심속에 보아주시었다. 어느 한 상품을 보시고는 우리 인민이 오래전부터 좋아해온것이라고 못내 반가워하시고 여러가지 종류의 빵 제품들을 보시고는 생일상이나 결혼상에 놓으면 아주 보기 좋을것이라고 기뻐하시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 흔한 원료를 가지고 만든 파자를 보시면서 이것을 만드는 방법까지 헤아려 주시었다.

수백가지나 되는 제품들을 하나하나 세심히 살펴보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신 위대한 장군님, 인민에게 더해질 기쁨과 웃음을 자신의 민족으로 여기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네 일꾼들은 흠오르는 걱정을 금치 못하였다.

이러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선군시대의 미장에 맞게 개진된 향반루대중식당도 돌아보시었다.

21년전에 찾았시었던 추억을 더듬어오는듯 깊은 감회속에 식당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께서는 지난 시기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게 사실들과 인연의 장을 비롯한 내부시설들이 모두 새것이 나게 꾸려졌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무엇을 하나 건설해도 만만대로, 조국의 귀중한 재부로 되게 하려는 우리 인민의 불타는 애국심과 창조정신이 낯은 고귀한 결실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사실 1년 남짓하게 벌어진 향반루대중식당 개건공사의 성과적 진행은 시작부터 마감까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 한 령도에 의한것이였다.

지난해 1월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께서는 향반루대중식당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진하도록 하고 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었다. 설계도 시공도 판독있고 힘 있는 단원들이 말아하듯 하시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원만히 보장해주도록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대대적투쟁을 앞장에서 이끄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공사에서 제기되는 자그마한 문제까지 다 헤아리시고 건설로력과 자재를 우선적으로 돌려주도록 하신분 바로 우리의 장군님이시였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 아까지 없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건설에 참가한 당원들과 근로자들, 식당의 종업원들은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는 구호높이 2개의 현관과 9개의

신농수산물공장에서는 생산활동의 불길을 더욱 높이 지펴올리는 한편 위대한 장군님께서 맡겨주신 식료품업에서의 최첨단들과과제를 기어이 완수하기 위한 대담한 작전을 펼치고있으며 향반루대중식당의 봉사자들은 음식과 요리들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들과 같은 사람이 인민들에게 그대로 가닿도록 하쳐가고있다.

우리 인민이 누리는 행복은 이렇듯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고이 한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위대한 헌신의 길에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자욱자욱이 얹어 꽃피어나는것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심장을 다해 노래부른다. 아버지장군님께서 이어가시는 선군의 한길을 따라, 사랑의 그 자욱을 따라 우리의 행복이 온다.

본사기자 허명숙



— 신 농 수 식 료 공 장 에 서 —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원래 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삼의 가치와 행복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에 있는데 무엇이 아니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장은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조업하였다.

강성대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를 펼쳐치고 현대적인 경공업공장을 일떠세우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에 의하여 생산의 첫걸음을 맨 우리 공장은 지난 10여년간을 통하여 사랑, 파자, 빵, 강장, 에스키모, 탄산단물, 술을 비롯한 10여종에 수백가지의 식료품을 생산하는 종합적인 식료가공기지로서 장성강화되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은혜로운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께서는 지난 기간 우리 공장의 생산과 경영활동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올바른 방향과 방

고 가지수가 많아졌으며 최근에 있는 공장을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진확장하였다. 또한 여러 생산공정들에 대한 CNC화를 실현함으로써 생산능력을 높여왔다.

일마진 우리 일터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CNC화를 실현하여 생산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위생문화, 생산문화,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며 지켜야 한다는 용기백배하여 생산활동화 해와 우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식료품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에 나서신 파업들을 제시하시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여 장군님께서 바라시는데로 공장을 인민들이 실질적으로 덕을 보는 식료품생산기지로서 전변시켜나 갔다.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기 위하여 강성대국의 승리를 앞당기려는 투쟁을 계속 하신다.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기 위하여 강성대국의 승리를 앞당기려는 투쟁을 계속 하신다.

선농수산물공장 지배인 리희숙

은 참대로 엮은 그릇에 우유바나나 치즈와 과일, 캐비아 같은 갖가지 정제된 음식들을 담아놓은것이였다. 이어 그릇에 놓인 닭도마뱀, 낙지무침, 소고기탕육을 비롯한 여러가지 요리까지 하나하나 쳐다보며 달려다니는 원자재들이 이리저리 훑어내다 보니

본사기자 허명숙

### 인민이 덕을 보는 공장

다들 환히 밝혀주시었다. 성과가 기록되었을 때에 모든 공로를 우리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돌려주시었다.

올해에만 하여도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우리 공장제품들을 보아주시고 높은 치하의 말씀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귀중한 가르치심과 따뜻한 교유의 말씀을 받아안은 우리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용기백배하여 생산활동화 해와 우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식료품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에 나서신 파업들을 제시하시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여 장군님께서 바라시는데로 공장을 인민들이 실질적으로 덕을 보는 식료품생산기지로서 전변시켜나 갔다.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기 위하여 강성대국의 승리를 앞당기려는 투쟁을 계속 하신다.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기 위하여 강성대국의 승리를 앞당기려는 투쟁을 계속 하신다.

선농수산물공장 지배인 리희숙

### 꽃피어나는 우리 장군님 이야기

향반루대중식당을 찾아서

염청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그때인 최욱순동무는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수십년전 우리 식당을 처음 일떠세워주시던 그날에 벌써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식당을 값비싼 원자재를 들여 만든 음식들을 녹은 값으로 봉사하여 하기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에서라도 견뎌내야 하는것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을 위해서선 그 어떤 수리라도 해야 할것입니다.》

### 과학연구성과로 대고조의 숨결을 세차게

국가과학원 3화수승연구소에서

연구자들은 지질학 모드의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면서 원자재 부족을 극복하였다. 연구가 심화됨에 따라 당대소비자 변형공공투자는 해당한 방도를 추진하고 하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위훈에 불려일으켰다.

마음과 마음이 합쳐지는 가운데 연구자들은 뛰어난 과학기술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 기술을 받아들인 결과 현존해 대를 리용하여 통나무를 누르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흉남가수소대수소공업으로 제때에 보낼수 있게 되었다.

실장 정하철동무를 비롯한 여러 연구진단의 연구사들도 뚜렷한 실적으로 경제장국건설에 이바지하였다.

백두산권정년발전소건설장에 달려나간 정하철동무는 해당 일꾼들과 함께 끝자락

### 교정에 바쳐가는 열정

연안군 미산중학교 교장 강룡철동무

연안군 미산중학교에서는 최근년간 교육환경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꾸리고 학생들을 강성대국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는 사업을 잘해가고있다. 여기에는 조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숭고한 자각으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는 교장 강룡철동무의 뜨거운 열정이 숨배어있다.

10년전 교장직임을 시작한 강룡철동무는 학교의 구수구수들을 돌아볼수록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었다. 며칠후 그의 사무실 책상우에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전망목표가 놓여있다. 몇가지 것들을 현실로 꽃피우는 과정은 고심어린

### 〈지렁이전용해교과〉약을 개발

천연물약연구소의 주영민

천연물약연구소의 주영민 동무를 비롯한 일꾼들과 과학자들은 원료원천이 풍부한 지렁이를 가지고 뇌혈전용제를 비롯한 순환기질환에 좋은 〈지렁이전용해교과〉약을 연구개발하였다.

지렁이는 예로부터 열을 내리고 독을 풀며 회춘작용, 피부부항치료약으로 우리 인민들이 널리 리용하여온 전통적인 고리약제이다.

일꾼들과 과학자들은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치료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는 효능높은 고리약들을 많이 생산할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고리약생산을 과학화, 품종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본사기자

### 연구자들이 열정적으로

연구사들은 지질학 모드의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면서 원자재 부족을 극복하였다. 연구가 심화됨에 따라 당대소비자 변형공공투자는 해당한 방도를 추진하고 하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위훈에 불려일으켰다.

마음과 마음이 합쳐지는 가운데 연구자들은 뛰어난 과학기술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 기술을 받아들인 결과 현존해 대를 리용하여 통나무를 누르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흉남가수소대수소공업으로 제때에 보낼수 있게 되었다.

실장 정하철동무를 비롯한 여러 연구진단의 연구사들도 뚜렷한 실적으로 경제장국건설에 이바지하였다.

백두산권정년발전소건설장에 달려나간 정하철동무는 해당 일꾼들과 함께 끝자락

연안군 미산중학교 교장 강룡철동무

연안군 미산중학교에서는 최근년간 교육환경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꾸리고 학생들을 강성대국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는 사업을 잘해가고있다. 여기에는 조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숭고한 자각으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는 교장 강룡철동무의 뜨거운 열정이 숨배어있다.

10년전 교장직임을 시작한 강룡철동무는 학교의 구수구수들을 돌아볼수록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었다. 며칠후 그의 사무실 책상우에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전망목표가 놓여있다. 몇가지 것들을 현실로 꽃피우는 과정은 고심어린

연안군 미산중학교 교장 강룡철동무

연안군 미산중학교에서는 최근년간 교육환경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꾸리고 학생들을 강성대국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는 사업을 잘해가고있다. 여기에는 조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숭고한 자각으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는 교장 강룡철동무의 뜨거운 열정이 숨배어있다.

10년전 교장직임을 시작한 강룡철동무는 학교의 구수구수들을 돌아볼수록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었다. 며칠후 그의 사무실 책상우에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전망목표가 놓여있다. 몇가지 것들을 현실로 꽃피우는 과정은 고심어린



